

「自由貿易帝國主義論」에 관한 小考*

朱 宗 桓

| <目 次> | |
|--|----------------------------|
| I. 序 論 | II. 「自由貿易反帝國主義」論 |
| II. J. Gallagher 와 R. Robinson 의 「自由貿易帝國主義」論 | IV. Platt-Fieldhouse 流의 理論 |
| | V. 「自由貿易帝國主義」論爭의 現段階 |

I 序 論

自由貿易主義는 第2次大戰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世界經濟秩序를 뒷받침 하는 大原則으로 되어 왔다. 이른바 Breton Woods 體制가 그것이다. 그러나 70年代에 들어와서 資源民族主義의 擡頭, 美國國際收支의 慢性的 赤字累積으로 말미암은 金의 交換停止와 이에 뒤이은 變動換率制로의 移行, 그 결과로서의 IMF體制的 事實上的 붕괴, 先進工業國들에 의한 輸出割當制의 부과를 비롯한 各種 非關稅 障壁의 구축 등 一聯의 事態進展은 自由貿易主義의 사실상의 終焉을 가져 왔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自由貿易主義의 붕괴는 國內經濟政策에 대하여도 심대한 影響을 끼치게 되었고, 各國은 점차 國家統制主義(statism)的 경향을 濃厚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이제 國際적으로나 國內적으로나 自由放任主義政策은 현실적으로 포기되고 있는 實情이다. J.M. Keynes 는 1930年代에 自由放任主義가 끝났다고 말한 바 있었지만 [100], 第2次大戰 이후 약 30年間 美國의 主導 아래 그것이 약간 復活되는 듯 하다가, 1970年代 後半 이래도 다시금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最近에는 이것을 가리켜 「自由放任主義의 終焉」이라

* 東國大學校 農科大學 教授(經博)・(農業經濟學)

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 [89 : p.143] 그리고 이러한 全世界的인 政策基調의 變化는 經濟理論에 대하여도 많은 變革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自由로운 價格메카니즘이 A. Smith 的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資源의 最適配分(이른바 Pareto Optimality)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Paradigm 에 입각하는 新古典學派의 諸原理는 經濟의 현실과의 乖離를 深化시키게 되었다. [89, pp.143—164] 특히 國際經濟의 現實은 近年의 이른바 「從屬理論」의 내두에서 보듯이 그 동안의 自由貿易主義가 低開發國들의 先進工業國에 대한 從屬性的 深化를 가져왔다는 反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49]. 第3世界에 속하는 韓國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 Joan Robinson 女史의 다음의 말은 매우 印象的이다.

『第3世界의 知識人들 사이에 傳播되고 있는 均衡理論과 自由貿易理論에 관한 正統派의 學說들은 그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均衡理論은 自由放任主義를 두둔하는 假說을 說明한 것이지만, 政策目的으로서의 發展이라는 概念, 그 자체가 自由放任主義와는 合致되지 않는 개념이다. 또한 自由貿易의 例는 輸出과 輸入이 언제나 均衡을 이루고 있는 模型을 가지고 說明되고 있으나, 第3世界의 모든 나라들은 外貨不足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經濟分析에 대한 接近法을 달리함으로써, 第3世界의 지식인들은 그들의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經濟學만으로는 이에 대한 解答을 얻을 수 없다.』[165 : p.336]

분명히 經濟學만으로는 韓國의 現實에 대한 올바른 解答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新古典學派의 洗禮를 받은 一部 官邊經濟學者들은, 理論과 現實과의 乖離를 무시하고, 新古典學派의 自由貿易理論을 韓國의 農產物輸入問題에 적용함으로써 失敗作들을 演出해 오고 있다. 그 가장 두드러진 例는, 1979년에 실시되었던 農畜產物輸入의 開放政策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韓國農業이 겪어야 했던 쓰라린 經驗은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되뇌일 필요도 없이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다. 소값, 돼지값, 마늘값, 깨값 할 것 없이 農民의 所得의 源泉이 될 만한 農產物의 價格은 모조리 暴落하였다[216, p.31]. 거기에서 展開되었던 論理는, 輸出振興을 위해 低勞賃이 필요하고, 低勞賃을 위해서는 低農產物價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221]. 이에 대한 理論的·實際的 批判은 이미 筆者에 의해서 비교적 상세히 전개되었고 [216], 筆者의 理論은 그 후 Joan Robinson 의 또 하나의 著書에 의해서 그 正當性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166], 여기에서는 詳論을 피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新古典學派의 自由貿易理論의 理論的·實際的 限界性이 筆者에 의해서나 Joan Robinson 에 의해서 분명히 제시되었고,

또 그 후에, 그것을 부연하는 글들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217], 이 땅의 經濟學은 아직도 謎夢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一種의 精神分裂症的[217, p.125; 227, p.203] 症候群(Syndrome)에서 스스로를 解放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現實과 동떨어진 經濟學教科書들의 범람이 이것을 단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自由貿易主義야말로 開發途上國이 취해야 할 길이며, 自由放任主義에 입각하는 「舊國際經濟秩序」야말로 第三世界 나라들이 經濟開發을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戰略이며, 「新國際經濟秩序」의 主張은 韓國, 台灣 등의 이른바 新生工業國들(NICS)의 「눈부신」 經濟成長에 의해서 이미 설 땅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外國의 學者들이 의외로 많다. 그하나의 두드러진 예는 日本 筑波大學(Tsukuba University) 助教授 渡邊利夫(Watanabe, Toshio)博士의 경우에서 나타나고 있다[223]. 筆者는 이에 대한 批判을 시도한 바 있으므로 상세한 것은 그쪽으로 미루기로 하겠거니와[218], 여기에서 한가지만 지적해 둔다면, 韓日國交正常化 이후에 전개되어 온 韓國의 심한 貿易赤字의 累積과 막대한 日本資本流入이 韓國經濟의 對日依存性을 深化시킴으로써 韓國經濟의 自立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는 눈을 감고, 自由貿易主義의 效能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渡邊助教授流의 주장은, 日本의 國益擁護라는 입장에서는 지극히 타당한 주장으로 될 수 있지만, 韓國經濟의 自立과 均衡의 發展이라는 民族的 當爲性의 입장에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는 사실이다[218]. 이런 점에서도 自由貿易主義의 歷史의 本質을, 歷史의 原點으로 되돌아가서 깊이 再吟味 해 본다는 것은, 우리의 現實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기서 한 가지 특별히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Joan Robinson 이 앞서의 引用文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現實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經濟學만으로는 부족하고 隣接科學 특히 歷史學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英國을 조국으로 하여 발생하였던 自由貿易主義의 本質의 特性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동안 순전히 經濟問題로서만 논의의 대상으로 되어 온 自由貿易主義의 性格을 새로운 角度에서 밝혀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英國의 自由貿易主義의 歷史의 本質에 관해서는, 1953年 J. Gallagher와 R. Robinson 이 共同으로 執筆한 論文 "The Imperialism of Free Trade"[60

및 182 reprinted]가 발표된 이래 수많은 學者들이 참여한 國際的 論爭이 전개되어 왔으며, 이 論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學界에서는 筆者의 寡聞의 탓인지도 모르지만, 이 論爭을 소개 내지 分析한 論文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小論은 이러한 韓國學界의 空白地帶를 다소나마 메꾸어 보려는 조그만한 試圖에 불과하다. 紙面의 制約으로 論爭의 要點만을 간추리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筆者 自身の 評價를 곁들여 보려고 한다. 그러는 가운데 이 論爭이 韓國經濟의 現實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를 浮刻시키고, 그럼으로써 韓國經濟의 現實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理論的 方向檢索에 약간의 빛을 던져 보려고 한다.

Ⅱ. J. Gallagher와 R. Robinson의 「自由貿易帝國主義」論

1950年代 初까지 歷史學界의 通說로 되어 왔던 것은, 資本主義의 祖國, 英國이 1830年代 이후 제국주의적, 침략적 성격을 탈피하여 보다 平和적이고 非軍事의인 성격의 自由貿易主義를 표방하고 추진함으로써, 性格上에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通說은 C.A. Bodelsen[9]과 R.L. Schuyler[176]의 研究에 의해서 대표되고 있다. 이들은 1850年代를 反帝國主義가 最高潮에 달한 때라고 보았다[9 : pp.79, 94f, 276, 278 및 176 : pp.245, 247, 263]. 이와 같은 견해는 19世紀末에 이르러 새로운 단계로서의 제국주의의 時代가 시작되었다는 思潮— 이른바 「新帝國主義論」(New Imperialism)의 古典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J.A. Hobson[84]과 V.A. Lenin[115]의 「제국주의론」과 細部的인 취지는 다르지만 同一한 脈絡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12].

위에서 말한 Bodelsen 과 Schuyler 는 英國의 支配的 對外政策이 19世紀 中엽에 이르러 「무역은 하지만 支配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平和主義・國際主義・萬民主義(Cosmopolitanism)에 입각한 自由貿易主義로 크게 변모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의 두드러진 例는 이 시기에 크게 대두된 「植民地分離論」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이 시기에 나타난 植民地分離論者들의 주장을 광범하게 수집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다. 그들은 英國人歷史家들이 帝國解體論과 反帝國主義의 感情을 간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歷史家로서의 不偏不黨性和 革新性을 주장하면서, 19世紀 中엽의 反제국주의적 주장들에 관한 史料들을 정력적으로 광범하게 수집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의 著書들은 오랫동안 19世紀 英國帝國研究史에 있어서의 『權威』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182, p.28], 『正統』이라는 평

을 받기도 하였다[109].

특히 Schuyler 는 1846년의 곡물법(Corn Law)의 철폐, 1849년의 航海條例의 폐지 등을 예로 들면서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Tucker, Broughman, Huskissen, Cobden, Joseph Hume 과 Durham, Buller, Molesworth 등 植民改革論者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들이 Adam Smith 의 國富論과 美大陸 식민지의 獨立에 뒤따른 여론에 입각한 『反帝國主義』(Anti-Imperialism)의 唱導者였다고 보고 있다. 이 『행복했던 시기』에는 萬民主義·國際主義·人道主義·平和主義가 지배하였으며 후에 史家들에 의해서 「콥덴主義」(Cobdenism)의 時代로 불리우게 되었는데 이 時期는 18世紀의 『重商主義의 帝國主義』와 19世紀末의 이른바 『新帝國主義』와의 中間에 一時期였다고 schuyler 는 말한다.

이러한 通說에 대하여 J. Gallagher 와 R. Robinson 은 1953년에 발표한 論文「自由貿易帝國主義」에서 비판을 가함으로써 이에 挑戰하였다[60 및 182(reprinted)]. 이들의 論文은 學界에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의외로 광범한 反響과 支持者와 支持력을 갖고, 그 出現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19世紀 帝國主義의 再檢討』를 위한 새로운 연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224].

그러면 Gallagher-Robinson 論文(이하에서는 G-R 論文이라고 약한다)이 그와 같은 파문을 던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그들의 問題提起의 核心은 무엇이었는가?

우선 G-R 論文은 通說의 견해가 自由貿易과 帝國主義를 서로 대립되는 체계로 본 데 대하여, 이 兩者가 사실상으로는 개념상으로는 相互補完의 並存의 關係에 있다고 보고, 이 견해를 「自由貿易帝國主義」(Imperialism of Free Trade)라는 그들의 論文의 題目으로써 매우 선명하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通說批判의 기초는 다음 두 가지 점에 있었다. 하나는, 時期區分上의 문제로서 19世紀를 제국주의의 시대와 反제국주의의 시대로 區分하고 이 두개의 時代를 형식적으로 대립시켜 왔던 通說을 비판하였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범주적으로 公式의 帝國(formal empire)과 非公式의 帝國(informal empire)으로 二分하여, 兩者를 切斷하여 前者만을 독립된 운동체인 양 생각하고 여기에 연구의 관심과 대상을 한정시켜 왔던 通說의 帝國主義史研究를 비판하였다는 점이다[223 : p.7]. 위에 말한 두 가지 점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言及해 두는 것이 앞으로의 서술을 위해 편리할 것 같다.

우선 제 1點에 관해서 말한다면, G-R 論文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帝國에 관한 中期 Victoria 시대의 『無關心』과 末期 Victoria 시대의 『熱中』이라는 通說의 역사 해석을 배경하고, 19世紀를 帝國主義와 反帝國主義로 兩分하는 견해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論據로서 그들이 제시한 역사적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 兩時代를 一貫하여 英國의 海外에서의 公式 및 非公式의 支配力이 계속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通說이 反帝國主義의 時代라고 보고 있는 1841~51年間에, 英國은 New Zealand, Gold Coast, Labuan, Natal, Panjab Sind, Hong Kong 등을 併合하고 있었으며, 그에 뒤이은 20年間(1851~70年)에는 Beran, Oudh, Birma 南部, 九龍, Lagos 와 Sierra Leone 의 隣近, Basutoland, Griqualand 와 Transvaal, Queensland, British Columbia 등을 역시 併合하였다. 이와 같이 「公式의 帝國」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通說이 歷史的事實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視野를 넓혀 「非公式의 帝國」까지를 고찰하게 되면, 通說과 歷史的 事實과의 괴리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 G-R 論文의 지적이다.

(2) 反帝國主義의 時代에 南아프리카, 西아프리카 海岸地域, 南太平洋地帶에서 帝國的 權益이 계속 유지·확대되고 있다.

(3) 植民地에 대한 自治政府의 승인이라는 사실도 이 시대의 反帝國主義的 성격 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英國의 權益을 유효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方法上의 전환으로서, 直接的 方法으로부터 間接的 方法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4) 특히 通說과 부합되지 않는 例는 인도(India)의 경우이다. 인도에 있어서는 通說이 「反帝國主義의 時代」라고 말하는 全時代를 통하여 戰爭과 領土의 併合이라는 사실들이 수없이 뒤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19世紀말에 나타났던 帝國主義的 팽창과도 비슷한 약간의 樣相들도 나타나고 있다.

A.G.L. Shaw 도 후에 이 점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1815~64年의 50年間에 있어서 英國의 植民地 領有面積은 年平均 10萬平方마일씩 증가하고 이 年平均增加率은 1865~1914年의 50年間(이른바 新帝國主義時代)의 그것과 맞먹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19世紀중엽의 自由貿易主義의 시대를 反帝國主義의 시대라고 보았던 通說에 대한 G-R 論文의 비판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아 왔거니와, 이제 그 비판의 내용 中, 第二의 點, 즉 「公式의 帝國」과 「非公式의 帝國」으로 兩分하는 通說에 대한 그들의 비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G-R 論文은, 「公式의 帝國」만을 중요시하는 形式主義를 배격하고 「非公式의 帝國」도 이와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帝國主義 研究에 있어서 어떤 쪽에 치우치지 않고 兩者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입장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들은 「英國 팽창에 관한 總體性的 概念(The concept of the totality of British expansion)」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같은 「總體性」의 觀點에서 보면 帝國主義의 「連續性」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가능하면 非公式으로 필요하다면 公式으로 支配權을 擴大하려는 原則』下에 英國의 對外 政策이 시행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이 兩者 사이에는 政策上的 基本的 「連續性」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通商하나 支配하지 않는다(trade not rule)는 원칙 아래 19世紀 英國의 對外政策이 추구되어 왔다는 通說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보다 정확하게는 『可能하면 非公式的 支配를 통한 通商, 필요하다면 公式的 支配를 통한 通商』(下點은 筆者)이 英國의 一貫된 政策으로 되어왔다고 결론짓고 있다[60, p.13]. 이들의 理論이 「連續說」(Continuity theory)이라고 불리워지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G-R 論文에 의하면, 「帝國主義란, 아마도 새로운 지역들을, 새로이 팽창하고 있는 經濟에 統合하는, 이 과정에 필요한 政治的 機能이다」라고 定義되어 있다. 즉 經濟的 統合過程이 平和롭게 원할하게 진행되면 帝國主義는 前面에 나타나지 않는다. 「自由貿易主義」란 이런 경우를 가르킨다. 이에 反하여 經濟的 統合過程에 어떤 障害物 또는 저항이 있을 경우에는 「帝國主義」가 前面에 나타나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 따라서 自由貿易主義와 帝國主義는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同時に 共存하고 補完하는 개념과 實體라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自由貿易主義는 「自由貿易帝國主義」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帝國主義的 行動의 程度는 그때 그 때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본다. 즉 『公式의 帝國이라는 重商主義的 技術』이 채용되고 있었던 Victorea 中期의 印度와 同一한 時期에, 同一한 目的을 追求하는 Latin America 에서의 『自由貿易이라는 集公式的 技術』이 行使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方法論的 特徵이 分明히 Lenin 과 Hobson 의 『帝國主義論』에 대한 批判을 內包하고 있다는 점이 여기에서 강조될만하다. Lenin 과 Hobson 은 帝國主義가, 資本主義의 특정의 단계에, 先進資本主義經濟의 發展의 結果로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으로써, 19世紀를 自由貿易主義에 입각하는 產業資本主義時代로 段階規定하고, 19世紀末과 20世紀初를 새로운 帝國主義段階라고 規定하였다. 그것은 G-R 論文이 입각하는 「連續說」에 대립되는 「斷絕說」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Lenin 과 Hobson 의 주장은 「帝國主義의 諸局面」과 「母國經濟의 經濟成長의 諸局面」과의 對應關係를 重視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R 論文은 이러한 見解를 「經濟的 帝國主義」(economic imperialism)論이라고 부르고, 19世紀末에

나타났던 英國의 帝國主義의 팽창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英國의 政治・經濟의 內部的・構造的 變化보다는, 英國의 外在的인 國際的 環境, 즉 世界情勢의 變化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은 英國帝國主義의 對外膨脹政策의 原因을 外的 要因으로 轉嫁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런 點에서 그들의 理論이 英國帝國主義의 옹호론 내지는 美化論으로 기울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225 : p.20]. 그리고 그들이 自由貿易과 帝國主義를 하나의 「政治技術」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Ⅲ. 「自由貿易反帝國主義論」

이상과 같은 G-R 論文은 學界에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 論文 末尾의 參考文獻들을 보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論文들이 쏟아져 나왔는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小論에서는 그것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분석할 겨를이 없으므로,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골라서, 간단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G-R 論文에 대하여 正面으로 對立되는 反論을 제기했던 사람은 O. McDonagh 였다. 그는 “Anti-imperialism of Free Trade”라는 題目의 論文을 *Economic History Review* 誌에 발표함으로써, G-R 論文을 반격하였다. 그 要點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19세기의 「理論的 自由貿易論者」, 예컨대 R. Cobden 과 같은 사람은 「公式」 「非公式」의 어떤 形態의 帝國主義에도 反對하고 있는데, 이 점에 비추어 보아, 自由貿易主義가 그 실에 있어서 帝國主義的인 것이었다고 본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2) G-R 論文은, 『1845—60年の 英國의 정책과 公衆의 感情이 本質적으로 帝國主義的 性格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立證함으로써, 이것과 正面으로 대립되는 神話들을 분쇄했다』는 點에서는 많은 공적을 남겼다. 그러나 그 反面에, 『帝國主義에 대한 끈질긴 反對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무시하고, Victoria 時代의 英國의 帝國政策에 나타났던 多樣性を 부정』함으로써, 過度하게 「普遍化」시키고, 「沒人格化」시키는 잘못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그는 특히 中期 Victoreia 時代에 自由貿易主義를 열심히 주장하였던 R. Cobden 이 얼마나 反帝國主義的 言動을 했는가를 論證함으로써, 自由貿易主義가 帝國主義와는 正反對되는 것이었다는 點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McDonagh 가 아무리 R. Cobden 의主張에 주목하고 그것이 反帝國主義的인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Cobden 등의 주장이 英國의 政策主流가 되지 못하고, 現實을 움직이는 힘으로 나타나지 못했던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사실, 政府의 最高責任者인 首相이나 重要閣僚들은 대개 本質적으로 反分離論者 내지는 帝國結合論者였다[176, pp.237—239; 182, p.177]. J.S. Galbraith 도 責任있는 政治家의 責任있는 殖民地分離發言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斷言하고 있다[51, p. 20]. 또한 Cobden 이외에도 E.G. Wakefield 를 理論的 指導者로 했던 殖民地改革派(Colonial Reformers)에 있어서도, 그들의 眞意는 殖民地自治政府의 認定에 의하여 帝國內에서 一定한 범위의 自由와 自治權을 인정하려는 것이었다. 이들은 帝國內의 自由를 一定限度內에서 인정하려고 하는 「自由主義」精神 때문에 殖民地分離論者로 간주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英國의 工業化의 進전에 따라 인식이 새로워진 殖民地貿易과 移民을 殖民地自治의 인정을 통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本質적으로는 反分離論者였다고 할 수 있다[210]. 더욱이 19세기 中葉의 「殖民地問題에 관한 가장 탁월한 著述家」라고 불리우고 있는 G. Smith[9]에 있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殖民地」(Colonies)와 「從屬地」(dependencies)는 분명히 區分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의 急進의 分離論者들이 自治와 解放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對象地는 어디까지나 白人들이 거주하는 「殖民地」(예컨대, 濠洲·뉴질랜드·南阿聯邦 등)에 限定되었으며, 有色人種들이 居住하는 「從屬地」는 그 대상에서 除外되어 있었다. 사실 帝國問題가 浮上했을 때, 政治家나 教育받은 英國人들의 머리 속에 떠올랐던 것은 「殖民地」뿐이었고, 그밖의 「從屬地」들은 사실상 고려의 대상으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人口比에 있어서 殖民地는 3%에 불과하고, 從屬地인 인도는 97%를 차지하고 있었다[226, p.5]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Cobden 이나 Wakefield 등 自由貿易主義의 제창자들에 의한 殖民地分離論이라는 것도 McDonagh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코 反帝國主義의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었으며, 이와 같은 점에서 그에 의한 G-R 論文批判도 正當한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IV. Platt-Fieldhouse 流의 理論

G-R 論文에 대한 또하나의 反論은 D.C.M. Platt 에 의해서 제기되었다[154, 155, 156]. 그는 G-R 論文이 「自由放任主義와 自由貿易의 時代에도 英國의 外交政策에 있어서 貿易이 重要性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확실히

益)했으며, 이른바 「新帝國主義」時代に 있어서도, 英國政府가 될 수 있는 限「公式的」支配를 피하고 「非公式的」支配를 선택적으로 추구했다는 데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점은 정당한 일이었다고 評價하였다. 그러나 그는 G-R 論文이 中期 Victoria 時代의 通商政策에 관하여 他國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時期에 있어서 英國은 一貫해서 不干涉主義를 固守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당시의 英國政府의 주요 관심사는 英國商品, 英國人 및 英國財産에 대하여 差別待遇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門戶開放과 最惠國條約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고 본다. 英國의 市場開放要求는 中國에서의 阿片戰爭과 같은 暴力事態를 불러 일으키는 일도 없지 않았으나 「公式的」支配로까지 나아가지 않고, 條約의 遵守와 英國人の 生命과 財産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Napoleon 戰爭 이후 1850년까지 英國은 農産物의 自給自足を 이루고 있었으므로 國內投資와 國內市場에 중점을 둔 工業化過程을 겪었으며, 海外의 이른바 「非公式的」帝國의 市場에는 거의 利害關係를 갖지 않고 있었다. 즉 英國은 「非公式的」經濟帝國을 확보할 능력도 없었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다[159;160]. 이 당시에 英國의 領土가 계속 확장된 것은 事實이지만 英國政府가 그것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었고, 支配領域을 확장하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었던 邊境地의 英國人들에 끌려들어간 결과였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160, p.10].

D.K. Fieldhouse 도 이 점에 관하여 Platt 와 동일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즉 그는 「現存하는 帝國은 언제나 그 境界線을 擴大해 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것은 英國의 膨脹政策의 所産이 아니라, 오히려 現存 植民地의 境界領域에 있어서의 軍事的 安全保障의 필요, 行政上의 能率性維持의 필요, 또는 土着民保護의 必要의 所産이었다」고 보고 있다[隣接地域理論 contiguous area theory]. 그리고 이러한 「隣接地域理論」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歷史上的 領土의 팽창에 대해서는 第 2의 說明原理로서 政治的 判斷에 입각하는 列強間의 「新植民地獲得競爭」을 내세우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는 特殊歷史의 背景下에서 새로이 발생한 「經濟的 諸要因」에서 帝國主義發生의 必然性을 설명하는 Hobson 과 Lenin 의 理論을 비판하려고 하였다. Fieldhouse 는 그들이 말하는 바와 같은 經濟史上의 斷絶은 존재하지 않으며, 經濟에 대한 政治的 優越이 이 時代의 一貫된 政策的 특징이었다고 보고 있다[41].

Platt 나 Fieldhouse 의 견해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첫째로 그들의 自由貿易에 대한 一種의 物神崇拜性이다[225, p.60]. 이와 같은 物神崇拜性은 Platt 의 다

음과 같은 말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自由貿易帝國主義’라는 것이 과거에 存在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世界의 諸市場을 平等한 條件으로 國際貿易에 開放하는 일에 한정되어 있었다. 즉 그것은 때에 따라서 暴力으로 귀결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 어떤 단계에 있어서도 排他的인 政治的 勢力이나 支配, 새로운 領土, 差別的·特惠的 待遇 등을 결코 요구하지 않는 行爲에 限定되어 있었다』[156, p.303]. 여기에서 Platt 는, 英國에 대하여 自由貿易을 보장하는 國際的 機構가 궁극적으로는 自由貿易을 원하지 않는 相對國에게 自由貿易을 강요하는 國際的 機構였으며, 强者의 意思를 弱者에게 강요하는 강제기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둘째로 Platt 나 Fieldhouse 에 있어서는 政治와 經濟의 二分法이 지배하고 있으며, 政治와 經濟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극히 主觀主義의이며, 帝國主義 擁護論的 성격이 매우 강한 역사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政治와 經濟의 二元論이 史實과 一致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컨대 1830年代의 植民地分離論者로 유명했던 E. G. Wakefield 는 英國國內에 資本의 過剩이 존재하고 有效需要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국제분업에 입각하는 自由貿易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178]. 또한 1839—42년의 阿片戰爭에서 나타난 英國의 정책도 그 하나의 두드러진 例였다. J. S. Galbraith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商人들이 市場에 자유롭게 出入할 수 있는 限, 高價의 征服戰爭이나 帝國管理裝置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利潤 많은 시장이 질서의 교란이나 정부의 敵對心 때문에 파괴당했을 때에는, 이 표면상의 무관심은 돌연 끝장이 났다. 1839年에서 1842年에 걸친 阿片戰爭은 自由貿易時代의 英國이, 비록 最後의 수단이라 하더라도 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武力을 사용할 용의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였다.』[182, p.36] M.B. Brown 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自由貿易은 他國의 發展을 억누르기 위한 英國의 工業的 支配의 道具였다.』[14, p.71] Friedlich List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自由貿易은 政治的·經濟的 發展에 있어서 뒤져 있는 모든 국민들을 가장 先進된 국민들을 위해 解消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117, p.468].

V. 「自由貿易帝國主義」論爭의 現段階

이상에서 우리는 Gallagah 와 Robinson 이提起한 「自由貿易帝國主義論」을 둘

러싼 論爭을 概括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는 自由貿易主義와 帝國主義의 事實上的 同一性和 連續性を 주장하는 G-R 論文쪽이 事態의 眞相을 보다 精確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G-R 論文의 내용을 모두 받아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G-R 論文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世紀末의 英國의 帝國主義的 膨脹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英國의 政治, 經濟의 內部的・構造的 變化보다는 英國의 外在的인 國際的環境, 즉 世界情勢의 變化에 중점을 두고 英國帝國主義의 對外膨脹政策等の 原因을 外的 要因에 전가시킴으로써, 英國帝國主義美化論 쪽으로 기울고 있다. 즉 P. J. Cain 도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G-R 論文은 英國의 國內經濟의 變動이 對外政策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Hobson 과 그의 追從者 들은 對外投資와 公式的 支配의 擴大와의 關係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그들은 膨脹에 대한 보다 순수한 工業上的 動機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19, p.67]. 『특히 英國의 戰略的 要衝으로 되어 있었던 地域에 있어서 金融業者들을 지휘하고 利用했던 것은 바로 英國政府였으며, 金融業者들이 政府를 지휘하거나 利用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事態를 설명하지 못했다』[19, p.69]. 『英國政府는, 海外市場이 보다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資本輸出의 급격한 증대가 가져다 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帝國主義的 領有에 보다 적극적인 利害關係를 가지게 되었다…… 1815年과 1914年 사이에 있어서 英國으로 하여금 그 權力和 影響력을 海外로 뻗게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經濟的 動機였다. 그리고 이러한 對外膨脹으로의 자극과 (公式的 또는 非公式的) 膨脹의 形態는 長期的인 經濟의 구조와 안정의 변화, 그것이 가져다 준 國際的 문제들, 그리고 英國의 주요 經濟적・政治적 경쟁상태국들에 대한 영국 經濟의 상대적 地位變動 등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經濟力이 언제나 帝國主義를 보완해 주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連續性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들은 이 全期間을 통하여 그 자체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 놓여 있었다.』[19, p.69].

自由貿易主義가 帝國主義의 다른 한 面에 불과했다는 인식은 1960年代에 이르러 크게 각광을 받기 시작한 『從屬理論』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예컨대 A.G. Frank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植民地主義, 自由貿易, 帝國主義 및 現代의 諸劃期들을 통하여』 衛星國을 『中心國 자신의 資本蓄積과 經濟發展을 위한 원천으로 전화시키는』 機構는 一貫해서 嚴然히 존재해 왔다. 그것을 그는 世界資本主義發展의 『帝國主義的 構造』라고 불렀다[49].

여기에는 분명히 連續說의 見解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連續說의 見解는 또한

I. Wallerstein 에 있어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다[203, 204, 205]. Wallerstein 은 歷史上 존재했던 社會 system 을 「世界 system」으로써 파악한다. 그리고 世界 system 은 두 가지의 形態를 취한다. 하나는 「世界帝國」이고, 또 하나는 「世界經濟」이다. 前者는 單一의 分業體制下에 있으면서 政治的으로도 統合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後者는 政治的 統合體制를 수반하지 않는 分業體制를 말한다. 近代以前の 世界 system 은 대개 「世界帝國」이었다. 이에 대하여 15世紀末부터 성립된 近代의 유럽世界經濟는 「世界帝國」화하지 않고 「世界經濟」로 남아 있다.

資本主義는 처음부터 「世界經濟」의 形態로 15·6世紀의 유럽世界經濟의 성립과 더불어 탄생했다는 것이 그의 독특한 견해이다. 그의 이러한 資本主義觀이 筆者自身の 資本主義觀[219, 220]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지만 여기서는 紙面關係로 論外로 한다. 아 물론 그는 이러한 독특한 資本主義觀에 입각하여 「世界經濟」를 구성하는 세계의 요소들을 제시한다. 中核(center), 半周邊(semi-periphery), 周邊(periphery)이 그것이다. (이러한 그의 着想은 F. Braudel로부터 示唆를 얻은 것이다.) 이 가운데 「世界經濟」의 周邊部는 食糧이나 原材料生産으로의 特化를 강요 당하고 「低開發化」된다. 그리고 강력한 國家機構를 구축한 中核諸國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周邊이나 半周邊으로 부터 剩餘를 吸收해 간다.

위와 같은 I. Wallerstein 의 견해 역시 近代世界 system 을 「世界經濟」로 파악하고, 中核諸國에 의한 周邊國 및 半周邊國의 經濟的 搾取야말로 近代를 一貫해 온 基本원리였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G-R 論文의 「自由貿易帝國主義論」과 같은 系列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도 連續性의 측면만이 一方的으로 강조되고, 連續性 속에 또한 質的으로 다른 要因들이 여러 단계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무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自由貿易帝國主義」나 Wallerstein 이 말하는 「世界經濟」가 그 本質的 支配構造를 溫存시키면서 連續的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資本主義經濟의 發展의 과정에서 어찌하여 그 때 그 때 形態를 바꾸어 가면서, 어떤 때에는 非公公式의인 自由貿易主義에 의한 지배의 形態로, 어떤 때에는 公公式의인 帝國主義的 支配의 形態로 탈바꿈해 왔는가를 資本主義經濟의 內部構造의 分析을 통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결코 「經濟的 帝國主義論」이라고 낙인찍혀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모든 側面에서의 綜合的 分析을 통해서만 近代世界經濟의 本質究明에 肉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또한 Joan Robinson 과 더불어 「經濟學만으로는 이에 대한 解答을 얻을 수 없다」는 것, 均衡과 自由放任主義를 金科玉條로 생각해 온 新古典派經濟學을 가지고서는 韓國經

濟를 비롯한 第三世界經濟의 自主的 發展의 길을 모색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두고자 한다.

다만 끝으로 한 가지 더 添言해 두어야 할 것은, Frank 나 Wallerstein 에 의해서 제기된 近代資本主義社會의 支配와 從屬의 構造分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從屬으로부터의 脫皮를 위한 戰略의 研究에 의해서 補充되지 않는 限, 우리의 문제 해결에 그다지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뜻에서 「從屬理論」은 開發을 위한 政治經濟學으로 昇華되어 가야만 할 것으로 본다. 從屬의 지나친 강조는, 從屬으로부터의 脫皮를 위한 破壞만을 강조하고, 破壞에 뒤이어 나타나야 할 建設의 當爲와 方向을 등한시하는 경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歷史的 分析和 科學的 經濟學的 綜合的 結合에 의해서만 그러한 위험성이 止揚될 것으로 기대된다.

〈參 考 文 獻〉

I. 歐美文獻 (EcHR 은 *Economic History Review*, second series.)

1. J.F.A. Ajayi and R.A. Austen, 'Hopkins on Economic Imperialism in West Africa', *EcHR*, xxv (1972). (Cf. 84).
2. S. Alvinieri, *Karl Marx on Colonialism and Modernisation* (1968).
3. A. Atmore and S. Marks, 'The Imperial Factor in South Africa in the Nineteenth Century: Towards a Reassessment',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wealth History*, III I (Oct 1974).
4. M. Barrett Brown, 'A Critique of Marxist Theories of Imperialism', in R. Owen and B. Sutcliffe (eds), *Studies in the Theory of Imperialism* (1972).
5. J. Bastin, 'Britain as an Imperial Power in South Eastern Asia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J.S. Bromley and E.H. Kossman (eds), *Britain and the Netherlands in Europe and Asia* (1968).
6. W.G. Beasley, *Great Britain and the Opening of Japan 1834-1858* (1951).
7. G. Blainey, 'Lost Causes of the Jameson Raid', *EcHR*, xviii (1965).
8. D.C. Blaisdell, *European Financial Control in the Ottoman Empire* (1929).
9. C.A. Bodelsen, *Studies in Mid-Victorian Imperialism* (1924, repr. 1960).
10. K.E. Boulding, *Economic Imperialism*, (1972), [韓宅煥·金章鎬 譯, 〈帝國主義의 諸觀點〉 (1982)]
11. B.H. Brown, *The Tariff Reform Movement in Great Britain 1891-95* (1943).
12. I.G. Brown, 'British Financial Advisors in Siam in the Reign of King Chulalongkorn', *Modern Asian Studies*, xii (1978).
13. L. Brown, *The Board of Trade and the Free Trade Movement, 1830-1842* 1958.

14. M. Barrett Brown, *After Imperialism*, 2nd ed. (1970).
15. J.F. Cady, *A History of Modern Burma* (1958).
16. P.J. Cain, 'European Expansion Overseas 1830-1914', *History*, Lix (1974).
17. _____ 'Political Economy in Edwardian England. The Tariff Reform Controversy 1903-14', in A. O'Day (ed.), *The Edwardian Age* (1979).
18. _____ 'Capitalism, War and Internationalism in the Thought of Richard Cobden', *British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5 (1979), 112-30.
19. _____ *Economic Foundations of British Overseas Expansion 1815-1914*, (1980).
20. M.E. Chamberlain, 'Clement Hill's Memorandum and British Interests in East Africa', *English Historical Review*, Lxxxvii (1972).
21. _____ 'Sir Charles Dilke and the British Intervention in Egypt, 1882', *British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ii (1976).
22. K.C. Chan, 'British Policy in the Reorganization Loan to China 1912-13', *Modern Asian Studies*, v (1971).
23. M.K. Chapman, *Great Britain and the Bagdad Railway 1888-1914* (1948).
24. E. Chew, 'The Reasons for British Intervention in Malay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the Malay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38 (1965).
25. J.H. Clapham, 'The Last Years of the Navigation Acts', in E. M. Carus-Wilson (ed.), *Essays in Economic History*, vol. iii (1962).
26. R.O. Collins, 'Origins of the Nile Struggle: Anglo-German Negotiations and the MacKinnon Agreement of 1890', in P. Gifford and W.R. Louis (eds), *Britain and Germany in Africa* (1967).
27. W.H.B. Court, *British Economic History 1870-1914. Commentary and Documents* (1965).
28. C.D. Cowan, *Nineteenth-Century Malaya. The Origins of British Political Control* (1961).
29. G. Daniels, 'The British Role in the Meiji Restoration. A Reassessment', *Modern Asian Studies*, ii (1968).
30. B. Dean, 'British Informal Empire. The Case of China', *Journal of Commonwealth and Comparative Politics*, xiv (1976).
31. R. Denoon, "Capitalist Influence" and the Transvaal Government during the Crown Colony Period, 1900-6', *Historical Journal*, xi (1968).
32. K.O. Dike, *Trade and Politics in the Niger Delta 1830-1885* (1956).
33. R.E. Dumett, 'Joseph Chamberlain, Imperial Finance and Railway Policy in British West Africa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English Historical Review*, xc (1975).
34. E.M. Earle, *Turkey, The Great Powers and the Bagdad Railway. A Study in Imperialism* (1924).
35. E.W. Edwards, 'Great Britain and the Manchurian Railways Question 1909-10', *English Historical Review*, Lxxxi (1966).
36. _____ 'The Origins of British Financial Co-operation with France in China

- 1903-6', *English Historical Review*, Lxxxvi (1971).
37. C.C.Eldridge, *England's Mission: The Imperial Idea in the Age of Gladstone and Disraeli 1868-80*(1973).
 38. S. Fairlie, 'The Nineteenth-Century Corn Law Reconsidered', *EcHR*, xviii (1965).
 39. H.S. Ferns, 'Britain's Informal Empire in Argentina 1806-1914', *Past and Present*, iv (1953).
 40. _____ *Britain and Argentina in the Nineteenth Century*(1960).
 41. D.K. Fieldhouse, 'Imperialism: An Historiographical Revision', *EcHR*, xiv(1961/2).
 42. _____ *Economics and Empire 1830-1914*(1973).
 43. C.A. Fisher, 'The Changing Dimensions of Europe',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i (1966).
 44. J.E. Flint, *Sir George Goldie and the Making of Nigeria*(1960).
 45. _____ 'Britain and the Partition of West Africa', in J.E. Flint and G. Williams(eds), *Perspectives of Empire*(1973).
 46. F.R. Flournoy, *British Policy Towards Morocco in the Age of Palmerston*(1935).
 47. G. Fox, *Britain and Japan 1858-83*(1969).
 48. R.M. Fransci, 'The British Withdrawal from the Bagdad Railway Project in April 1903', *Historical Journal*, xvi (1973).
 49. A.G. Frank,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1967).
 50. J.S. Galbraith, 'The "Turbulent Frontier" as a Factor in British Expansion',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ii (1960).
 51. _____ 'Myths of the "Little England" Era', *American Historical Review*, cxvii (1961). Reprinted in Shaw(182).
 52. _____ *Reluctant Empire. British Policy on the South African Frontier 1834-54* (1963).
 53. _____ 'The Chartering of the British North Borneo Company', *Journal of British Studies*, iv (1965).
 54. _____ 'The British South Africa Company and the Jameson Raid', *Journal of British Studies*, x (1970).
 55. _____ 'Gordon, MacKinnon and Leopold: The Scramble for Africa 1876-82', *Victorian Studies*, xiv (1970/1).
 56. _____ *MacKinnon and East Africa 1878-95. A Study in the New Imperialism* (1972).
 57. _____ 'Origins of the British South Africa Company', in J.E. Flint and G. Williams (eds), *Perspectives of Empire* (1973).
 58. _____ *Crown and Charter: The Early Years of the British South Africa Company* (1974).
 59. J. Gallagher, 'Foxwell Burton and the New African Policy 1838-42', *Cambridge Historical Journal*, x (1950).
 60. J. Gallagher and R. Robinson, 'The Imperialism of Free Trade, 1815-1914', *EcHR*,

- iv (1953/4). Reprinted in Shaw (182) and Louis (121).
61. N.G. Garson, 'British Imperialism and the Coming of the Anglo-Boer War', *South African Journal of Economics*, xxx (1962).
 62. R.J. Gavin, *Aden Under British Rule, 1839-1967* (1975).
 63. R.N. Ghosh, 'The Colonization Controversy: R. Wilmot Horton and the Classical Economists', *Economica*, new ser., xxxi (1964). Reprinted in Shaw (182).
 64. D.R. Gillard, *The Struggle for Asia 1828-1914. A Study in Russian and British Imperialism* (1977).
 65. B.M. Gough, "Turbulent Frontiers" and British Expansion: Governor James Douglas, the Royal Navy and the British Columbia Gold Rushes', *Pacific Historical Review*, xLi (1972).
 66. C.F. Goodfellow, *Great Britain and South African Confederation 1870-1881*. (1966).
 67. G.S. Graham, *Great Britain and the Indian Ocean. A Study of Maritime Enterprise 1810-50* (1967).
 68. R. Graham, *Britain and the Modernization of Brazil 1850-1914* (1968).
 69. _____ 'Sepoys and Imperialists: Techniques of British Power in Nineteenth-Century Brazil', *Inter-American Economic Affairs*, xxiii (1969).
 70. _____ 'Robinson and Gallagher in Latin America. The Meaning of Informal Imperialism', in Louis (121).
 71. W.D. Grampp,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1960).
 72. M. Greenberg, *British Trade and the Opening of China 1800-42* (1951).
 73. P. Guillen, 'The Entente of 1904 as a Colonial Settlement', in P. Gifford and W.R. Louis (eds), *Britain and France in Africa* (1971).
 74. K.A. Hamilton, 'An Attempt to Form an Anglo-French "Industrial Entente"', *Middle Eastern Studies*, ii (1975).
 75. W.K. Hancock, *Survey of British Commonwealth Affairs*, vol. ii (1940).
 76. J.D. Hargreaves, *Prelude to the Partition of West Africa* (1963).
 77. _____ 'British and French Imperialism in West Africa 1885-1898', in P. Gifford and W.R. Louis (eds), *Britain and France in Africa* (1971).
 78. _____ *West Africa Partitioned. The Loaded Pause 1885-90* (1974).
 79. P. Harnetty, 'The Indian Cotton Duties Controversy 1894-1896', *English Historical Review*, Lxxvii (1962).
 80. _____ 'Lancashire and the Indian Cotton Duties, 1859-62', *EcHR*, xviii (1965).
 81. *Imperialism and Free Trade, Lancashire and India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1972).
 82. B. Hilton, *Corn, Cash, Commerce,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Tory Governments 1815-30* (1977).
 83. J.A. Hobson, 'Capitalism and Imperialism in South Africa', *Contemporary Review*, Lxxvii (1900).
 84. _____ *Imperialism. A Study* (1968 ed.).
 85. M. Hood, *Gunboat Diplomacy 1895-1905. Great Power Pressure in Venezuela* (1975).

86. A.G. Hopkins, 'Economic Imperialism in West Africa. The Case of Lagos 1880-92', *EcHR*, xxi (1968).
87. _____ 'Economic Imperialism in West Africa: A Rejoinder', *EcHR*, xxv (1972). (Cf. i.)
88. _____ *An Economic History of West Africa* (1973).
89. M. Hudson, *Global Fracture: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1977).
90. R. Hyam, 'The Partition of Africa', *Historical Journal*, vii (1964). Reprinted and revised in R. Hyam and G. Martin (eds), *Reappraisals in Imperial History* (1975).
91. _____ *Britain's Imperial Century 1815-1914: A Study of Empire and Expansion* (1976).
92. W.G. Hynes, 'British Mercantile Attitudes towards Imperial Expansion', *Historical Journal*, xix (1976).
93. M. Jacks, 'The Purchase of the British Government's Shares in the British Petroleum Company, 1912-14', *Past and Present*, xxxix (1968).
94. L.H. Jenks, *The Migration of British Capital to 1875* (1963).
95. D.J. Jeremy, 'Damning the Flood: British Government Efforts to Check the Outflow of Technicians and Machinery, 1780-1843', *Business History Review*, Li (1977).
96. H.J.M. Johnstone, *British Emigration Policy 1815-30. 'Shovelling Out Paupers'* (1972)
97. J.B. Kelly, 'The Legal and Historical Basis of the British Position in the Persian Gulf', *St Antony's Papers*, iv (1958).
98. M. Kent, 'Agent of Empire? The National Bank of Turkey and British Foreign Policy', *Historical Journal*, xviii (1975).
99. _____ *Oil and Empire. British Policy and Mesopotamian Oil 1900-1920* (1976).
100. J.M. Keynes, *The End of Lesseze Faire*, (1926).
101. V.G. Kiernan, 'Britain's First Contacts with Paraguay', *Atlante*, iii (1955).
102. _____ *Marxism and Imperialism* (1974).
103. K.K. Kim, 'The Origin of British Administration in Malaya', *Journal of the Malay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39 (1966).
104. E.R. Kittrell,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Colonization in English Classical Political Economy', *Southern Economic Journal*, xxi (1964/5). Reprinted in Shaw (182).
105. I. Klein, 'Salisbury, Rosebery and the Survival of Siam', *Journal of British Studies*, viii (1968).
106. _____ 'Britain, Siam and the Malay Peninsula 1906-9', *Historical Journal*, xii (1969).
107. _____ 'English Free Traders and Indian Tariffs 1874-96', *Modern Asian Studies*, v (1971).
108. _____ 'British Intervention in the Persian Revolution 1905-1909', *Historical Journal*, xv (1972).
109. B.A. Knox, 'Reconsidering Mid-Victorian Imperialism',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wealth History, i (1972/3).

110. _____ 'Care is More Important Than Haste: Imperial Britain and the Creation of Queensland 1856-9', *Historical Studies. Australia and New Zealand*, Lxvi (1976).
111. R. Koebner and H.D. Schmidt, *Imperialism. The History and Significance of a Political Word, 1840-1960* (1964).
112. O. Köymen, 'The Advent and Consequences of Free Trade in the Ottoman Empire', *Etudes Balkaniques* 2 (1971).
113. R.V. Kubicek, 'The Randlords in 1895: A Reassessment', *Journal of British Studies*, xi (1972).
114. D.S. Landes, 'Some Thoughts on the Nature of Economic Imperialism', *Journal of Economic History*, xxi (1961).
115. V.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Collected Works*, xxii (1964).
116. C. Lewis, 'British Railway Companies and the Argentinian Government', in D.C. M. Platt (ed.), *Business Imperialism 1840-1930. An Inquiry Based on British Experience in Latin America* (1977).
117. F. List, 'Die politisch-ökonomische Nationaleinheit der Deutschen', List, *Werke*, 7. Bd. (1857)
118. T. Lloyd, 'Africa and Hobson's Imperialism', *Past and Present*, Lv (1972).
119. W.R. Louis, 'Sir Percy Anderson's Grand African Strategy', *English Historical Review*, Lxxxi (1966).
120. _____ 'The Berlin Congo Conference', in P. Gifford and W.R. Louis, *Britain and France in Africa* (1971).
121. _____ (ed.), *Imperialism. The Robinson and Gallagher Controversy* (1975).
122. O. McDonagh, 'The Anti-Imperialism of Free Trade', *EcHR*, xiv (1962). Reprinted in Shaw (182).
123. W.D. McIntyre, *The Imperial Frontier in the Tropics 1865-75. A Study of British Colonial Policy in West Africa, Malaya and the South Pacific in the Age of Gladstone and Disraeli* (1967).
124. D. McLean, 'Chinese Railways and the Towneley Agreement of 1903', *Modern Asian Studies*, vii (1973).
125. _____ 'Commerce, Finance and British Diplomatic Support in China 1885-6', *EcHR*, xxvi (1973).
126. _____ 'The Foreign Office and the First Chinese Indemnity Loan 1895', *Historical Journal*, xvi (1973).
127. _____ 'British Finance and Foreign Policy in Turkey: The Smyrna-Aidan Railway Settlement 1913-14', *Historical Journal*, xix (1976).
128. _____ 'Finance and "Informal Empire" before the First World War', *EcHR*, xxix (1976).

129. A.K. Manchester, *British Pre-Eminence in Brazil* (1933).
130. M. Manteou, 'The British in the Atacama Desert: The Cultural Basis of Economic Imperialism', *Journal of Economic History*, xxxvi (1975).
131. V. Marks, *The First Contest for Singapore 1819-24* (1959).
132. A. Marsden, *British Diplomacy and Tunis 1875-1902* (1971).
133. G. Martin, *The Durham Report and British Policy. A Critical Essay* (1972).
134. _____ 'Empire Federalism and Imperial Parliamentary Union 1820-70', *Historical Journal*, xvi (1973). Reprinted in R. Hyam and G. Martin (eds), *Reappraisals in Imperial History* (1975).
135. W.M. Mathew, 'The Imperialism of Free Trade: Peru 1820-70', *EcHR*, xxi (1968).
136. _____ 'The First Anglo-Peruvian Debt and Its Settlement 1822-1849',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ii (1970).
137. _____ 'Foreign Contractors and the Peruvian Government at the Outset of the Guano Trade',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Lii (1972).
138. _____ 'Antony Gibbs and Sons, the Guano Trade and the Peruvian Government 1842-61', in Platt (ed.), *Business Imperialism*. (Cf. 116).
139. A.A. Mawby, 'Capital, Government and Politics in the Transvaal 1900-1907. A Revision and a Reversion', *Historical Journal*, xvii (1974).
140. R. Miller, 'The Making of the Grace Contract: British Bondholders and the Peruvian Government 1885-90',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iii (1976).
141. _____ 'British Firms and the Peruvian Government 1885-1930', in Platt (ed.), *Business Imperialism* (Cf. 116).
142. D.C. Moore, 'Imperialism and "Free Trade" Policy in India 1853-4', *EcHR*, xvii (1964). Reprinted in Shaw (182).
143. _____ *Sir Charles Wood's Indian Policy 1853-66* (1966).
144. W.P. Morrell, *British Colonial Policy in the Mid-Victorian Age* (1969).
145. D.J. Moss, 'Birmingham and the Campaign Against the Orders in Council and East India Company Charter 1812-13', *Canadian Journal of History*, xi (1976).
146. A.E. Musson, 'The "Manchester School" and the Exportation of Machinery', *Business History*, xiv (1972).
147. C.W. Newbury, 'Trade and Authority in West Africa from 1850 to 1880', in L.H. Gann and P. Duignan (eds), *Colonialism in Africa*, vol. i (1969).
148. R. Owen, 'Egypt and Europe: From French Expedition to British Occupation' in R. Owen and B. Sutcliffe (eds), *Studies in the Theory of Imperialism* (1972).
149. _____ 'Robinson and Gallagher on Middle East Nationalism: The Egyptian Argument', in W.R. Louis (121).
150. H.O. Pappé, 'Wakefield and Marx', *EcHR*, iv (1951/2). Reprinted in Shaw (182).
151. N.A. Pelcovits, *Old China Hands and the Foreign Office* (1948).
152. I.R. Phimister, 'Rhodes, Rhodesia and the Rand',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i (1975).

153. D.C.M. Platt, 'British Diplomacy in Latin America since the Emancipation', *Inter-American Economic Affairs*, xxi (1967).
154. _____ 'British Policy During the New Imperialism', *Past and Present*, xxxix (1968).
155. _____ *Finance, Trade and Politics in British Foreign Policy 1815-1914* (1968)
156. _____ 'The Imperialism of Free Trade: Some Reservations', *ECHR*, xxi (1968).
157. _____ 'Economic Imperialism and the Businessman: Britain and Latin America before 1914', in R. Owen and B. Sutcliffe (eds), *Studies in the Theory of Imperialism* (1972).
158. _____ *Latin America and British Trade, 1806-1914* (1972).
159. _____ 'Further Objections to an "Imperialism of Free Trade" 1830-60', *ECHR*, xxvii (1973). Reprinted in Shaw (182).
160. _____ 'The National Economy and British Imperial Expansion Before 1914',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wealth History*, ii (1973/4).
161. B. Porter, *The Lion's Share. A Short History of British Imperialism 1850-1970* (1975)
162. V.J. Puryear, *International Economics and Diplomacy in the Near East. A Study in British Commercial Policy in the Levant 1834-54* (1935).
163. A. Ramm, 'Britain and France in Egypt 1876-82', in P. Gifford and W.R. Louis, *Britain and France in Africa* (1971).
164. E. Reynolds, 'Economic Imperialism: The Case of the Gold Coast', *Journal of Economic History*, xxxvi (1975).
165. J. Robinson,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s*, McGraw-Hill, 1973 [朱宗桓譯〈現代經濟學批判〉, 1979].
166. _____ *Aspects of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167. R. Robinson and J. Gallagher with A. Denny, *Africa and the Victorians. The Official Mind of Imperialism* (1961).
168. R. Robinson and J. Gallagher, 'The Partition of Africa', *Cambridge Modern History*, xi (1962). Reprinted in Louis (121).
169. R. Robinson, 'Non-European Foundations of European Imperialism. Sketch for a Theory of Collaboration', in R. Owen and B. Sutcliffe (eds), *Studies in the Theory of Imperialism* (1972). Reprinted in Louis (121).
170. A.L. Rosenbaum, 'The Manchurian Bridgehead. Anglo-Russian Rivalry and the Imperial Railways of North China 1897-1902', *Modern Asian Studies*, x (1976).
171. G.N. Sanderson, *England, Europe and the Upper Nile 1882-99* (1965).
172. _____ 'The European Partition of Africa: Coincidence or Conjuncture?',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wealth History*, iii (1975).
173. D.R. Sardesai, *British Trade Expansion in South-East Asia 1830-1914* (1977).
174. A. Schölch, "'The Man on the Spot" and the English Occupation of Egypt in

- 1882', *Historical Journal*, xix (1976).
175. J. Schumpeter, *Imperialism* (1951).
176. R.L. Schuyler, *The Fall of the Old Colonial System* (1945, repr. 1966).
177. B. Semmel, *Imperialism and Social Reform 1895-1914* (1960).
178. _____ 'The Philosophic Radicals and Colonialism', *Journal of Economic History*, xxi (1961). Reprinted in Shaw (182).
179. _____ 'On the Economics of "Imperialism"', in B.F. Hoselitz (ed.), *Economics and the Idea of Mankind* (1965).
180. _____ *The Rise of Free Trade Imperialism. Classical Political Economy, the Empire of Free Trade and Imperialism 1750-1850* (1972).
181. A.G.L. Shaw, 'British Attitudes to the Colonies ca. 1820-50', *Journal of British Studies*, ix (1969).
182. _____ (ed.), *Great Britain and the Colonies 1815-65* (1970).
183. G. Shepperson, 'Africa, the Victorians and Imperialism', *Revue Belge de Philologie et d'Histoire*, xL (1962). Reprinted in Louis (121).
184. S. Sideri, *Trade and Power. Informal Colonialism in Anglo-Portuguese Relations* (1970).
185. A.W. Silver, *Manchester Men and Indian Cotton 1847-72* (1966).
186. K. Sinclair, 'Hobson and Lenin in Johore: Colonial Office Policy towards British Concessionaries and Investors', *Modern Asian Studies*, iv (1967).
187. D.P. Singhal, *The Annexation of Upper Burma* (1960).
188. Z. Steiner, 'Finance, Trade and Politics in British Foreign Policy 1815-1914', *Historical Journal*, xiii (1970).
189. J. Stengers, 'L' Imperialisme Colonial de la fin du XIX^e siècle', *Journal of African History*, iii (1962/3). Translated in P.J.M. MacEwan, *Readings in African History*, vol. ii (1968).
190. E. Stokes, 'Late Nineteenth-Century Colonial Expansion and the Attack on the Theory of Economic Imperialism: A Case of Mistaken Identity?' *Historical Journal*, xii (1969).
191. _____ 'Imperialism and the Scramble for Africa. The New View', in Louis (121).
192. _____ 'Uneconomic Imperialism', *Historical Journal*, xviii (1975).
193. N. Tarling, 'British Policy in Malay Waters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K.G. Tregonning (ed.), *Papers in Malayan History* (1962).
194. _____ *Imperial Britain in South-East Asia* (1975).
195. S.Y. Teng, *The Taiping Rebellion and the Western Powers. A Comprehensive Survey* (1971).
196. E. Thio, 'The British Forward Movement in the Malay Peninsula', in K.G. Tregonning (ed.), *Papers in Malayan History* (1962).
197. D. Thorner, *Investment in Empire. British Railways and Steam Shipping Enterprise*

- in India(1950).
198. B.R. Tomlinson, 'India and the British Empire 1880-1935', *Indian Economic and Social History Review*, xii(1975).
 199. L. Trainor, 'The British Government and Imperial Economic Unity 1890-5', *Historical Journal*, xiii (1970).
 200. C.K. Tregonning, *Under Chartered Company Rule. North Borneo 1881-1946*(1958).
 201. C.M. Turnbull, 'The Origin of British Control in the Malay States Before Colonial Rule', in J. Bastin and R. Roolvnick, *Malayan and Indonesian Studies*(1964).
 202. J.E. Tyler, *The Struggle for Imperial Unity 1868-95*(1938).
 203. I. Wallerstein, *The Modern World System: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 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1974-a).
 204. _____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Concepts for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xvi, 4, (1974-b).
 205. _____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206. _____ *The Modern World System II: Mercantilism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European World Economy, 1600-1750* (1980).
 207. J.M. Ward, *British Policy in the South Pacific(1786-1893)* (1948).
 208. _____ *Empire in the Antipodes. The British in Australasia 1840-60*(1966).
 209. J.B. Williams, *British Commercial Policy and Trade Expansion 1750-1850*(1972).
 210. D.N. Winch, 'Classical Economics and the Case for Colonization', *Economica*, new series, xxx (1963). Reprinted in Shaw(182).
 211. D. Winn, 'British Informal Empire in Uruguay in the Nineteenth Century', *Past and Present*, Lxxiii (1976).
 212. H.M. Wright, *The 'New Imperialism': Analysis of Late Nineteenth Century Expansion*, (1961).
 213. L.K. Young, *British Policy in China 1895-1902*(1972).
 214. S.H. Zebel, 'Fair Trade: An English Reaction to the Breakdown of the Cobden Treaty System', *Journal of Modern History*, xii(1940).
 215. _____ 'Joseph Chamberlain and the Genesis of Tariff Reform', *Journal of British Studies*, vii (1967).

II. 東洋文獻

216. 朱宗恒, 「比較優位論의 適用限界: 韓國農業의 경우」, 韓國經濟學會, 『經濟學研究』, No 27, (1979).
217. _____ 「現代經濟學의 危機와 韓國經濟學」, 『現代社會』, 1981. 여름호
218. _____ 「開發經濟學의 基本視點をめぐつて: 渡邊利夫助教授の韓國經濟論の 批判的檢討」, 『世界經濟評論』, vol. 26, No. 7~8, 1982. <日本文>
219. _____ 『農業經濟學研究』, (1974).
220. _____ 『經濟學概論』, (1977).

221. 經濟企劃院, 『80年代를 向한 새 戰略』, (1979. 1月).
222. 金鎮轍, 「國際關係와 世界體制: I. 윌러스타인의 이론을 중심으로」, 『現代社會』, 1981년 가을호.
223. 渡邊利夫, 『現代韓國經濟分析』, 1982. 〈日本文〉
224. 宮崎犀一, 「自由帝國主義: 問題の開拓」, 『思想』, No. 515, 1967年 5月號.
225. 毛利健三, 『自由貿易帝國主義』, 1978.
226. 平田雅博, 「植民地と‘從屬地’: 植民地分離論再檢討」, (日本) 歷史學研究會, 『歷史學研究』 No. 498, (1982年 11月).
227. 杉原四郎・古澤友吉編, 『歷史派經濟學と近代經濟學』, (1977).